

북한의 교육일상 연구: 접근방법과 과제*

조정아(통일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경제난 이후 북한의 교육일상에는 전례 없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해방 이후 북한 교육의 기본 원칙으로 적용되어왔으며, 북한 주민들의 의식 형성과 통치에 대한 동의 확보의 주요 자원이 되었던 무상교육이 1990년대 중반의 경제난으로 인해 형해화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시장 요소의 확대, 계층 분화 등의 사회 변화와 능력 위주 교육정책 시행으로 인해 사교육이 등장하고 교육 격차가 심화되는 등 북한 교육 지형에 일대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북한 교육의 이러한 변화들은 주로 교육제도와 정책에 초점을 두었던 기존의 연구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으로, 북한 주민들의 ‘실제의 삶’과 그들의 교육일상에 대해 주목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기존의 북한 교육 연구는 주로 정책, 담론, 전략 연구를 중심으로

* 이 논문은 2007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습니다(KRF-2007-322-B00006).

이루어져 왔고, 교육 정책, 교육 제도와 공식적 교육과정, 교육의 사회적 기능, 교육의 역사적 전개과정 등이 주요한 연구 주제로 다루어졌다.¹⁾ 이러한 연구들은 북한 교육의 제도 및 정책의 특성과 변화과정을 보여주고 있지만, 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변수와 행위자 차원의 상호작용과 역동성을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구술증언을 활용해 실제 북한의 학교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서술하는 일련의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²⁾ 이 연구들은 북한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과 일상생활의 영역별로 북한이탈 주민들의 구술자료를 수집해 실제 학교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실제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묘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북한 학생들의 구체적 경험 이면에 숨어 있는 북한 교육의 본질적 특성을 드러내는 데에는 미흡함이 있었다.

이에 필자는 교육제도, 정책, 이데올로기, 공식적 교육과정에 관한 기존 연구를 넘어서서 북한의 교육일상세계에 대한 탐구를 통해 북한 교육과 관련된 내부 행위자들의 상호작용과 교육일상의 역동적 변화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 글에서는 북한의 교육일상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교육일상의 개념과 북한 교육일상 연구의 외연, 구체적인 연구주제에 대해 고찰한다. 또한 북한의 교육일상 연구의 주요 자료원천으로서 구술자료가 갖는 이점과, 주관성과 신뢰성, 대표성 문제 등 북한이탈주민 구술기록 활용상의

1) 북한 교육 연구의 주요 영역과 주제, 쟁점에 관해서는 신효숙, “북한 교육 연구의 성과와 과제,” 『현대 북한 연구의 쟁점 2』(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7) 참조.

2) 대표적인 연구로 송광성 외, 『북한 청소년 생활』(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1993); 한만길 위음, 『북한에서는 어떻게 교육할까』(서울: 우리교육, 1999).

쟁점에 대해 검토한다.

2. 교육일상의 의미와 교육일상 연구의 외연

‘교육일상 연구’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한다. 첫째는 연구의 대상이 ‘교육일상’이라는 의미이다. 즉, 교육일상에 관한 연구를 말하는 것이다. 둘째는 연구의 관점과 방법론으로 일상사의 관점을 취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물론 이 두 가지 의미는 중첩적이다. 이 글에서는 연구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교육일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초점을 두어 논의하고자 한다.

북한의 교육일상에 접근하기 위해 연구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일상’이라는 말은 ‘교육’이라는 말과 ‘일상’이라는 말의 복합어이다. 일반적으로 ‘일상’이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 그 사회의 일반적인 개인 또는 집합적 존재가 영위하는 생활이며, 특정한 사건이 아닌 장기간 반복되는 생활이며, 목적의식적이지 않으며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진행되는 행위의 연속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정의에 관해서도 논의의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일상의 범주를 ‘하층’ 주민들의 일상에 국한시킬 것인가, 아니면 엘리트나 관료, 지도자를 포함하는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일상을 포괄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 사생활의 영역뿐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일상의 범주에 포함시킬 것인가, 일상생활 속에서의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일과만이 아닌 특별한 사건이나 계기들을 포함시킬 것인가 등의 문제가 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일상’ 개념에 관해서는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연구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현상학적 전통에서는 “자연적 태도를 기초로 하여 경험, 사유, 그리고 행위가 상호 주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이, 마르크스주의 전통에서는 “개인의 재생산 활동의 총체”라는 점이, 그리고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전통에서는 “자아의 형성, 발전, 표현의 환경으로서의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 특히 대면적인 상호작용 상황”이라는 점이 특별히 강조된다. 하버마스(J. Habermas)의 비판 이론에서는 일상생활이 합리화되어 ‘상징적 재생산의 영역’으로 되었다고 봄으로써 그 축소된 기능의 측면이 강조된다.³⁾

학자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개념의 차이를 살펴보면, 엘리야스(N. Elias)는 ‘비일상’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의 ‘일상’의 특징을 평일, 통상적인 사회 영역, 직업일, 민중의 생활, 매일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영역, 사생활, 자연적·자발적·성찰되지 않은 체험과 사유의 영역, 일상의식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대립개념인 ‘비일상’은 축일, 특별한 비통상적인 사회 영역, 시민, 즉 노동하지 않고 이윤으로 호화롭게 생활하는 사람들의 생활 영역, 고위직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생활, 전통적인 정치적 역사 서술이 유일하게 적합한 것이라고 간주하며 큰 사건이라고 파악하는 모든 것, 즉 역사에서의 주요한 국가적인 행위, 공적인 혹은 직업적인 생활, 성찰된, 인위적인, 비자발적인, 그리고 특히 학문적인 체험과 사유의 영역, 올바른, 순수한, 참된 의식이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본다.⁴⁾

헬러(A. Heller)는 ‘일상’ 개념을 “개별인간의 재생산을 종합한 것을 나타내는 모든 행위”로 일상생활이 지니는 사회적 재생산의 가능성에

3) 강수택, 『일상생활의 패러다임』(서울: 민음사, 1998), 35쪽.

4) 위의 책, 32쪽.

중점을 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즉, 일상생활을 자신뿐 아니라 사회 재생산도 동시에 가능하게 만드는 개인적 재생산 요소들의 집합체로 정의한다. 그녀는 사람이 구체적인 정치사회적 조건과 제도 내에서 태어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인간의 재생산은 언제나 구체적 세계에 존재하는 ‘역사적 인간’의 재생산이고, 인간 역사에서 자발적이며 의식적인 행위는 언제나 예외적이며, 대부분의 인간 행위는 일상생활을 통해 사회적 통일성을 이룬다고 본다. 그러나 통일성이 동질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행위자는 일상생활을 통해 다양한 이질성을 드러낸다. 그녀에게 있어 일상생활은 동질성과 이질성이 공존하며 갈등하는 영역이다.⁵⁾

르페브르(H. Lefebvre)는 일상생활을 노동, 가정생활, 여가생활의 세 부분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생산과 재생산의 동질성을 주목했다. 그에 의하면 생산이란 사회적 시간과 공간까지를 포함하는 정신적 생산, 물건의 제조를 칭하는 물질적 생산, 그리고 인간 존재의 생산도 포함한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 생산은 총체적인 사회관계의 생산과 재생산까지를 포괄한다. 따라서 경제적 토대와 사회구조, 그리고 국가와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상부구조만으로 삶의 조건을 분석하는 것은 일상생활의 역동성을 상쇄하는 도식이 된다.⁶⁾

하버마스는 생활세계와 의사소통행위의 영역을 체계와 전략적 행위의 영역과 구분되는 영역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했다. 그는 국가 기구의 행정적인 하위체계가 거대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생활세계를

5) 헬러, 아그네스(A. Heller), “일상생활의 추상적 개념,” 박재환 엮음, 『일상생활의 사회학』(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2), 111~116쪽; 헬러, 아그네스, “일상생활의 이질성,” 박재환 엮음, 『일상생활의 사회학』, 376쪽.

6) Lefebvre, H., *La vie quotidienne dans le monde moderne*(Paris: Editions Gallimard, 1968), 박정자 옮김, 『현대세계의 일상성』(서울: 도서출판 기파랑, 1995), 66쪽.

침식하는 양상을 국가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라고 정의한다. 하버마스는 생활세계의 식민화라는 명제로 일차적으로 서구의 후기자본주의를 비판했고, 이후 현존 사회주의 사회, 즉 국유화된 생산수단과 제도화된 일당지배를 바탕으로 정치·행정 체계가 비대해진 사회에서 벌어지는 생활세계의 식민화도 비판했다.⁷⁾

일상 연구의 관점과 방향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시각이 존재한다. 일상을 안정이 지배하는 정적이고 종속적인 영역으로 인식하는가, 참여자의 주체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영역으로 인식하는가라는 점에 관한 입장의 차이이다. 전자의 입장에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형태로서의 일상이 지니는 반복성과 안정성을 중심에 둔다. 반복성과 지속성을 특징으로 하는 일상은 비록 고립되고 고정된 세계는 아니지만 긴장과 갈등이 해소되고, 안정과 평온이 유지되는 세계이다. 일상에서는 습관화된 사고나 행위에 의해 외부에서 나타나는 비일상적인 자극과 충격이 흡수되거나 조정됨으로써 혼란이 수습되고 평정이 회복되기 때문이다.⁸⁾ 일상적 반복행위의 관례화는 ‘안정’의 조건으로서 사회집단들과 제도들에 대한 ‘종속’을 의미한다. 후자의 입장에서는 일상은 사람들이 계층 혹은 계급별로 특수한 ‘문화적 생활방식’에 따라 사회적 삶의 현실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해석하면서, 지속적으로 파생되는 긴장과 갈등 속에서도 부단하게 현실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는 영역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다시 말해 일상이란 구조화된 사회적 현실을 개인이나 집단의 사회적 인식과 경험으로 매개하는 장으로서, 문화적으로 형성된 삶의 실천방식과 ‘전략’을 통해 현실을

7) 강수택, 『일상생활의 패러다임』, 268~272쪽.

8) 안병직, “‘일상의 역사’란 무엇인가,” 안병직 외, 『오늘의 역사학』(서울: 한겨레출판, 2002), 30쪽.

변화시키고 재구성하려는 시도가 나타나는 세계라는 것이다.⁹⁾ 이러한 관점에서는 인간들이 ‘그들의’ 세계를 ‘전유하는’, 그리고 그와 함께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형식들이 중심에 놓이게 된다.¹⁰⁾

또 한 가지 쟁점은 일상에 대한 연구가 일상생활에 드리운 다양한 소외와 억압을 확인하고 비판하는 데 중점을 두느냐, 아니면 생생한 경험의 영역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느냐 하는 점이다. 르페브르, 기 드보르(Guy Debord) 등은 전자의 입장을 취한다. 르페브르는 일상생활은 자본주의 사회관계의 재생산을 위한 핵심적 장소로, ‘일상생활의 식민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았으며, 사회 변혁의 과제로 일상생활의 ‘탈식민화’와 변환, 인간의 잠재력의 부활을 주장했다.¹¹⁾ 마페줄리(M. Maffesoli)의 경우 구조결정론의 경향을 반박하며 생생한 일상경험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가운데서 일상의 가능성을 찾는 후자의 관점을 취한다.

이와 같은 개념상의 쟁점과 강조점의 차이가 존재하는 가운데, 필자는 엘리아스의 개념과 같이 ‘일상’을 ‘비일상’과 명백히 대립되는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일상과 비일상의 연속성과 일상이 갖는 수렴적 성격에 주목한다.¹²⁾ 또한 일상에 드리운 구조적 통제와 억압만이 아

9) 위의 글, 30쪽.

10) Ludtke, A., *Alltagsgeschichte: Zur Rekonstruktion historischer Erfahrungen und Lebensweisen* (1989), 『일상사란 무엇인가』, 나종석 외 옮김(서울: 청년사, 2002), 19~23쪽. 여기서 ‘전유(專有, appropriation)’는 일상성을 극복하기 위해 앙리 르페브르가 개진한 핵심 개념이다. 소유는 소유이되, 남의 것이나 공동의 것 혹은 원래 자기 것이었어도 빼앗겨 남의 것이 된 것을 다시 자기 것으로 소유한다는 의미이다. 즉, 자신의 육체, 자신의 욕망, 자신의 시간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스스로 장악하고 주체적으로 관리한다는 의미이다. 박정자, “용어 해설,” 『현대세계의 일상성』, 박정자 옮김, 36~39쪽.

11) 장세륜, “앙리 르페브르의 일상생활 비판,” 호남사학회, 『전남사학』, 제25집 (2005), 304쪽.

나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행위자들이 권력과 지배의 틈새에서, 순종과 저항 사이의 회색지대에서 구사하는 여러 가지 대응과 실천전략에 착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치 지배체제하의 노동자들의 일상에 관한 연구나 사회주의 체제하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일상이 정치권력에 의한 지배가 일사분란하게 관철되는 세계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어떠한 전체주의 체제하에서라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대중들은 “지배의 그물망을 회피하되,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그것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부과된 일을 다른 방식으로 수행하거나 사용”함으로써 지배의 전략을 변질시킨다.¹³⁾

다음으로 ‘교육’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전적 의미의 교육은 “지식을 가르치고 품성과 체력을 기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심신을 발육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계획적·조직적으로 행하는 교수적 행동”을 뜻한다.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철학적 질문과 별개로, 교육일상 연구의 대상이 되는 ‘교육’은 그 사회 속에서 특정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현상으로서의 교육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교육일상은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제도적·연대기적으로 등급화되어 있고, 위계적으로

12) 모든 것은 일상성을 통해 일상생활에 수렴된다. 일상성은 전쟁이나 혁명의 비일상조차도 압도해버린다. 북한의 경제난이 주민의 일상생활을 붕괴시켰지만, 계획경제 중심적 삶의 일상성이 시장교환 중심적 일상성으로 변화하면서 곧바로 새로운 일상생활의 균형이 만들어진 것도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모든 사건과 비일상은 일상으로 수렴된다. 그러한 수렴이 가능한 것은 모든 인간이 자기보존의 일상성을 갖기 때문이다. 홍민, “북한 일상생활 연구의 방향과 방법론”(동국대학교 북한일상생활연구센터 제2회 북한 일상생활연구 토론회 발표자료, 2008), 19쪽.

13) 장세룡, “미셸 드 세르토의 일상과 민중문화,” 한국서양사학회, 『서양사론』, Vol.82(2004), 232쪽.

구조화된 형식교육(formal education)만이 아니라, 형식적인 학교교육 체제 밖에서 실시되는 조직적·체계적 교육활동인 비형식교육(nonformal education)과, 모든 사람들이 일상의 경험과 환경으로부터 지식, 기술, 태도, 통찰력을 획득하고 축적하는 평생의 과정인 무형식교육(informal education)을 포함한다는 점이다.

메리엄(S. Merriam)은 학습자의 의도성과 학습원천, 즉 교육주체의 의도성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지는 학습매트릭스(learning matrix)를 제시한 바 있는데, 그에 의하면 우리가 보통 교육이라고 부르는 것은 학습자의 의도와 학습원천의 의도가 있는 형식교육, 비형식교육이며, 이 외에도 세 가지 교육 또는 학습의 형태가 있다. 학습자의 의도는 있지만 학습원천의 의도가 없이 이루어지는 학습은 자기주도 학습(self-directed learning)이며, 학습원천의 의도만 있고 학습자의 의도는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선전·캠페인이며, 학습자와 학습원천의 의도가 전혀 없이 이루어지는 학습은 우연적 학습이다. 지금까지 북한 교육을 분석함에 있어서 주로 교육 주체인 국가와 학습자 모두의 의도가 개입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해왔다. 북한은 사회 전체가 의도된 교육의 장으로서의 기능이 강하며, 주어진 교육의 장에서 이루어지는 학습뿐 아니라 다양한 일상 속에서도 의식적·무의식적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양한 교육과 학습의 형태로 분석의 대상을 확장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각은 학교의 다면성과 다기능성을 볼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학교 안의 ‘비교육’과 학교 밖의 ‘교육’에 눈을 돌릴 수 있게 한다.

이상의 ‘교육’과 ‘일상’의 개념을 염두에 둘 때 ‘교육이라는 사회적 행위와 관련된 일상’에 관한 연구는 어떤 외연을 갖는가? 첫째, 사회구성원들의 교육 관련 일상생활과 경험을 분석하는 것이다. 즉, 이들

이 학교를 비롯한 교육의 장 속에서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고 배우는가, 그것을 개개인이 어떻게 경험하고 해석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목표로서의 교육과정으로 교육정책과 교과서 등을 통해 표현되는 ‘공식적 교육과정’만이 아니라, 공식적인 교육 목표 속에서는 언급되지 않지만 알게 모르게 배우게 되는 규범과 가치를 의미하는 ‘잠재적 교육과정’,¹⁴⁾ 즉 교사가 제시하는 공식적인 교육 목표 속에는 언급되지 않지만 암암리에 효과적으로 교육되는 규범과 가치를 포함한다. ‘잠재적 교육과정’은 교과서와 교사의 수업을 통해 전달될 뿐 아니라 학교의 규율 및 문화화도 관련되므로,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교육의 장을 학교에서 사회로 확대하면 사회에 편재되어 있는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와 관련된 일상생활과 교육 경험도 교육일상 연구의 대상이 된다. 특히 북한은 교육기관뿐 아니라 상당히 포괄적인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를 갖고 있다. 성인들과 직접 접촉하고 그들을 장악하고 있는 당 기구, 대중단체, 기업소와 협동농장 등의 생산단위들이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로서 학교 못지않게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다. 성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일터와 마을에서 당, 대중단체, 생산조직이 결합되어 사회의 유지에 필수적인 이데올로기 재생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을 학교라는 제도교육 내에서 이루어지는 목적의식적인 교육이라는 틀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국가교육기관, 사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의도적·비의도적, 의식적·비의식적인 가르침과 배움의 과정으로 그 의미를 확대해서 보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교육과 학습의 경험을 분석해야 한다.

둘째, 교육의 장에서 이루어지는, 또는 교육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

14) Apple, M. W., *Ideology and Curriculum*(London: Routledge & K. Paul, 1979), 『교육과 이데올로기』, 박부권·이혜영 옮김(서울: 한길사, 1985), 117쪽.

지는 행위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분석이다. 다양한 교육의 장에서 일어나는 교육 행위는 현실에서는 북한 교육을 주도하는 주요 행위자인 국가와 당이 의도한 바대로 구현되지는 못한다. 국가와 당이 특정한 제도와 교육 목적과 내용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바는 교육과 관계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과 역동에 의하여 변형되고 타협된 모습으로 구현된다. 이에 ‘의도된 교육과정’만이 아니라 ‘전개된 교육과정’과 ‘실현된 교육과정’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의도된 교육과정’은 목표로서의 교육과정이며, 법령으로 공포된 교육과정을 말한다. ‘전개된 교육과정’은 수업 속에 반영된 교육과정으로, 교사의 실제 수업행위를 의미한다. ‘실현된 교육과정’은 학습성과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실제로 배운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교사와 학습자 등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은 이 세 수준의 교육과정의 상호 불일치를 가져온다. 즉, 국가의 교육과정안과 교과서가 표방하고 있는 교육의 목표와 구체적인 교사의 수업을 통해 이것이 실현되는 정도, 학생들이 실제로 이를 학습하는 정도 간에는 일정 정도의 괴리가 존재한다. 교육일상 연구는 무엇을, 왜 가르치는가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교육적 상호작용을 통해 전달되는 특정한 지식, 기술, 규범, 태도 등이 행위자들의 인식과 행동 속에서 어떻게 해석, 수용, 변형되는가에 착목한다.

셋째, 교육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구조와 행위 간의 역동에 관한 분석이다. 삶의 일상적 과정을 통해 구조와 행위가 만난다. 일상생활세계는 개인의 행위를 규정하는 구조적 조건이 작동하는 공간인 동시에, 개인들이 자신의 행위를 제약하는 제도와 규칙을 해석하고 타협과 갈등의 상호관계를 통해 이를 변형시키는 공간이다. 이 과정에서 행위자들은 구조에 종속될 뿐 아니라 세계를 나름의 방식으로 전유한다. 일상상은 미시권력이 작동하는 곳이면서 동시에 개인이 이에 맞서서 ‘미

시저항’을 끝없이 펼칠 수 있는 장소이다. 일상이란 실천하는 주체가 죽어있는 소외의 공간이 아니라 지배와 저항의 긴장과 모순의 변증법을 실현할 수 있는 장소이다.¹⁵⁾ 이 점에서 일상생활세계는 구조가 재생산되는 공간인 동시에 구조를 변화시키는 미시적 조건이 만들어지는 공간이다.

여기에서 행위와 구조의 역동을 설명하는 역사사회학 이론이나 기든스(A. Giddens)의 ‘구조화(structuration)’ 개념이 근본적으로 반복적인 사회생활의 특성과 관련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브람스(P. Abrams)는 행위와 구조의 상호작용을 역사적 과정으로 이해하는 안목을 제공했다. 그는 행위와 구조의 상호작용이 사회변동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과정을 ‘구조화(structuring)’ 과정으로 개념화했다. 행위와 구조, 의식과 존재, 개인과 사회 등 종래 이분법적으로 파악된 대상을 따로 존재하는 두 실재로 다루지 않고, 다시 말하면 ‘구조화’ 안목에서, 하나의 실재로 파악하게 되고, 이어서 의도되지 않은 결과의 출현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¹⁶⁾

기든스는 구조를 행위에 의해서 계속하여 재조직되는 규칙과 자원으로 개념화하며, 구조의 이중성이라는 개념을 정립한다. 구조의 이중성이란 구조가 그 구조를 지속적으로 조직하고 재조직하는 사회적 실천들의 매개물이자 결과라는 뜻이다. 행위에 의해 구조적 규칙이 변화하는 가능성은 구조가 재생산되는 매순간마다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체계는 일상 사회생활에서 계속되는 연속적 재생산을 통해서만, 그리고 그 안에서만 구조화된다.¹⁷⁾ 기든스의 ‘구조화’ 개념은 근

15) 김기봉, “주체사상과 ‘일상의 정치화’”(동국대학교 북한일상생활연구센터 제1회 북한 일상생활연구 토론회 발표 자료, 2008), 19쪽.

16) 김기석, 『교육역사사회학』(서울: 교육과학사, 1999), 27 ~ 28쪽.

본적으로 반복적인 사회생활의 특성과 관련된다. 기든스는 일상의 시간을 매개로 행위가 구조화된다는 점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모든 행위 과정은 새로운 어떤 것의 생산이라는 의미에서 새로운 행위라는 데 동의할 수 있지만, 동시에 모든 행위는 그 행위를 촉발시키는 수단을 공급하는 과거와 연속성을 지니며 존재한다. 구조는 행위의 장애로서 개념화되기보다는 행위의 산출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개념화된다. 행위의 산출은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발생하는 사회변동의 가장 급진적인 과정 속에서도 그러하다.”¹⁸⁾ 기든스도 아브람스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시간 반복되는 일상의 과정을 통해 관행의 매개이자 결과로서 구조가 형성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교육일상과 관련해 이러한 구조와 행위간의 역동을 잘 보여주고 있는 연구로 영국 중등학교의 노동계급 학생들의 반학교문화에 관한 윌리스(P. Willis)의 연구가 있다.¹⁹⁾ 이 연구는 자본주의 사회인 영국의 중등학교에서 노동계급의 학생들이 반주지주의적·반학교적 지향을 지닌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행사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학교 내에서 대안적 헤게모니가 창출되고, 이것이 지배 헤게모니와 각축하

17) 김용학, 『사회구조와 행위』(서울: 나남출판, 2003), 102쪽.

18) Giddens, A., *Central Problems in Social Theory*(London: Macmillan Press, 1979), 『사회이론의 주요 쟁점』, 윤병철·박병래 옮김(서울: 문예출판사, 1998), 99쪽.

19) Willis, P., *Learning to labor: How working class kids get working class jobs*(Farnborough: Saxon House, 1977), 『교육현장과 계급재생산』, 김찬호·김영훈 옮김(서울: 민맥, 1989). 영국 중등학교의 학생문화를 관찰한 윌리스에 의하면 학교라는 제도 안에서의 공식적인 패러다임으로부터의 분화가 이루어지면서 ‘반학교문화’가 생성된다. 학교교육이 표방하는 공식적인 가치체계 및 문화로부터의 문화는 학생들에게는 이미 주어진 제도적 규정으로부터 분리되는 학습의 집단적 과정으로 체험되고, 제도의 담당자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붕괴와 저항, 반항으로 체험된다.

는 지점을 보여준다. 또한 행위자의 삶의 경험과 이들이 만들어내는 반학교문화가 사회적 재생산과정에서 거시적 사회구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3. 북한의 교육일상 연구 주제

북한 교육일상 연구의 구체적인 주제로 어떤 주제들을 생각해볼 수 있는가? 이 글에서는 북한 교육의 특질을 밝히는 데 있어 핵심적이면서도 접근가능한 주제로 교육일상의 변화 양상과 요인에 관한 연구, 이데올로기 재생산구조로서의 정치교육 관련 일상에 관한 연구, 교육의 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망과 행위자들 간의 타협과 흥정에 관한 연구, 북한 주민의 학습생애사 연구라는 네 가지 주제를 살펴보겠다.

첫째, 교육일상의 변화 양상과 요인에 관한 연구를 생각해볼 수 있다. 해방 이후 북한 교육일상의 변화에 관한 역사사회학적 탐구가 가능할 것이다. 홍민은 북한 연구에서 기존의 사건사 위주의 역사 인식과 탐구 대신 장기지속적 과정으로서의 시간, 중기지속적 과정으로서의 시간, 사건사라는 다층위적인 시간의 흐름을 읽어내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²⁰⁾ 북한 교육일상의 변화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해방 이전의 근대교육의 태동과 식민지시기 교육을 거쳐 현재까지 이어지는 장기지속적 교육의 일상과 해방 후 사회주의 제도의 도입 및 1960년대 중후반 유일체계의 확립, 최근 공교육의 형해화와 사교육 요소의 등장 등을 기점으로 하는 ‘사회주의적’ 및 ‘북한적’

20) 홍민, “북한 연구방법론 재고,” 한국정치연구회, 『정치비평』, 2003년 상반기 (2003), 195~197쪽.

특질이 형성되는 중기지속적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이어지는 사건사적 흐름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일상의 변화에 관한 탐구를 통해 특히 장기지속적 관점에서의 연속성과 중기지속적·사건사적 관점에서 북한의 교육의 변화과정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1990년대 중반의 경제난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10여 년간 북한의 교육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층적인 변화의 양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해방 직후 북한은 주민들의 교육열을 국가가 조직적으로 수렴하는 방식을 통해 공교육 체계를 정립하고 확대해나갔고, 그 과정을 통해 북한의 주민들에게 교육은 국가의 공적 영역으로 인식되고 경험되었다. 그런데 경제난 이후 무상의무교육제도가 부실화되고 사교육을 비롯한 교육의 사적 영역이 출현하면서 이러한 경험과 인식에 단절이 발생했다. 이러한 변화는 또한 해방 이후 “국가가 교육을 전적으로 책임진다”라는, 주민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져 왔던 무상교육의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²¹⁾ 자생적 시장화의 진전과 경제적 계층의 분화가 이루어지면서 계층에 따른 교육의 분화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부를 소유한 일부 계층은 경제적 능력을 활용해 자녀를 영재학교인 제1중학교와 일류대학에 보내려고 노력하는 반면, 먹고살기 바빠서 자녀교육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는 계층에서는 “대학도 못 갈 바에는 조선글이나 알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학부모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²²⁾ 즉, “어떤 계층인가”에 따라 자녀 교육을 “포기하는 부류하고 또 노력하는 부류”로 나뉘

21) 최근 북한의 교육정책의 변화와 교육실태에 관해서는 조정아, “‘교육에서의 실리주의’와 교육의 불균등발전: 2000년대 북한 교육의 변화,” 한국교육사회학회, 『교육사회학연구』, 제17권 4호(2007) 참조.

22) 북한이탈주민 면접 녹취록(40대 여성, 2005년 탈북, 함북 회령 출신, 협동농장원), 2008.6.11.

다는 것이다.²³⁾ 북한의 교육일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변화는 ‘사건사’적 수준을 넘어 교육이라는 재생산 기제의 심층적 변화의 단면이다. 최근의 교육일상의 변화에 관한 미시적 접근을 통해 우리는 중장기적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북한 교육의 지각변동의 징후들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일상사적 접근을 통하여 교육사회학의 전통적 질문 중의 하나인 교육의 생산성과 계급재생산 기능 문제를 다룰 수도 있을 것이다.²⁴⁾ 북한 교육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교육의 재생산 연구에서 활용되는 소득 수준, 직업, 학력과 각종 매개변인에 대한 계량적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학교교육이 사회의 평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가, 교육이 사회화와 사회배치에 어떻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가라는 질문은 다른 방식을 통해 탐구할 수밖에 없다. 교육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아니지만 최근 북한의 계층구조 변동에 관한 최봉대의 연구는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최봉대는 경제난 이후 북한의 경제적 계층분화를 매개하는 요인으로 개인의 장사능력과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연줄에 주목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이들 매개요인이 북

23) 북한이탈주민 면접 녹취록(40대 남성, 2002년 탈북, 평남 남포 출신, 관리직), 2008.5.28.

24) 김기석은 교육사회학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를 크게 제도교육의 생산성 연구와 재생산 기능에 대한 탐구로 구분한다. 교육의 생산성 탐구는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이루는 지적 생산성에 미치는 요인과 이 생산성이 개인의 사회경제적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연구이다. 학교교육효과 평가연구, 지위획득과정연구 등이 이에 속한다. 교육의 재생산기능 탐구는 제도교육이 실제로 수행하는 이데올로기 기능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재생산 관점에서 탐구하는 것이다. 정치경제학, 비판적 교육과정 논의, 이데올로기 분석, 헤게모니론 등이 교육의 사회재생산과정을 규명할 때 사용되는 관점들이다. 김기석, “서론: 제도교육 그 신화와 실상 탐구,” 『교육사회학탐구』(서울: 교육과학사, 1989), 16~17쪽.

한 주민들의 계층적 위치 변화 과정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밝히고 있다.²⁵⁾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북한 주민들의 생애사를 분석함으로써 계층이동에 미치는 교육의 영향력, 과거의 정치적 기준을 중심으로 하는 계층구조와 현재의 경제적 기준을 중심으로 하는 계층구조 사이를 매개하는 요인으로서의 학력과 지식의 작동방식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데올로기 재생산구조로서의 정치교육과 관련된 일상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교육은 인간형성의 과정이며, 특히 신념과 가치 체계를 형성하는 정치교육은 그 핵심이다. 알튀세르의 용어를 빌자면 교육, 특히 정치교육은 인간을 개별적·생물학적 존재에서 사회적 존재로 전환시키는 ‘호명’의 기제이다. 북한은 그 어떤 사회보다도 잘 발달되어 있는, 주민들의 일생을 거쳐 진행되는 ‘호명’의 기제를 통해 통치에 대한 끊임없는 동의를 구한다. 학교, 직장, 지역에서의 정치교육을 통해 대중체에 대한 주체의 종속화가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완전한 종속화의 과정은 아니다. 예를 들어 북한 주민들이 학교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주간, 월간, 연간 단위로 수행해야 하는 생활총화나 학교와 직장에서 매일 이루어지는 독보회라는 정치학습의 경우를 보자. 생활총화와 정치학습의 장을 통한 주민 의식의 주조가 이루어지지만, 한편으로 주민들은 자신의 생활에 대한 진실한 반성이 결여된 형식적 생활총화나 시간 때우기 식의 정치학습을 통해 지배자가 부과한 규율의 장치를 헛되게 소비함으로써 지배와의 거리두기를 시도한다. 특히 경제난 이후에는 직장의 생활총화나 정치학습이 상당히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돈으로 대체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25) 최봉대, “1990년대 말 이후 북한 도시 사적 부문의 시장화와 도시가구의 경제적 계층분화,” 『현대북한연구』, 11권 2호(2008).

그런데도 주민의 일생에 걸쳐 진행되는 구조화된 일상이 갖는 교육적 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 지금까지 북한 연구에서 정치교육은 국가가 통치이데올로기를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다루어졌을 뿐이다. 이를 교육일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그간 ‘전체주의적 북한’에 대한 선입관으로 인해 보지 못했던 교육과 관련된 일상의 관성과 행위자가 창출하는 전유의 공간 사이의 긴장관계, 강제와 동의의 창출, 적극적 동의와 다양한 저항행위 사이의 다양한 측면들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교육뿐 아니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 삶 속에서도 행위자들이 의무적으로 강제된 공적 시간을 자신들의 사적 시간으로 전유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방과 후의 노력동원이나 집단등교에 관한 교사 출신 북한이탈 주민의 구술 속에서 그러한 예를 발견할 수 있다. 경제난 시기에 피폐해진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03년 6월에 교육성은 “중앙학교꾸리기지휘부”를 조직하고 각 도·시·군에도 “학교꾸리지지휘부”를 조직하여 학교별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게 된다. 이에 각 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은 방과 후에 학교 청소, 도색, 운동장 정리 등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동에 동원된다. 그러나 얼핏 보기에 강제적 노동으로만 보이는 이러한 작업 시간은 행위자에 의해 “대단히 기다려지는” 시간으로 탈바꿈한다.²⁶⁾ 초중등학교의 집단등교제도에서도 이러한 전유의 틈새를 확

26) “총화는 한 30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당에 다 내려가서 풀 뽑기도 하고 마당정리를 하는 거죠. 우리는 좀 교장이 특별해가지고 매일 저녁 6시까지하는 시켜요. (그럼 매일매일 마당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학생들이 와가지고 마당이 아주 어지럽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그 교장의 성격에 관계되는 거 같더라고요. 다른 학교는 그런 게 없는데, 우리 학교는 대단히 깨끗했어요. (매일 마당정리를 하셨어요?) 네. 매일 마당정리를 하고 또 남자들

인할 수 있다. 등교 시 반별로 마을의 일정한 장소에서 모여 학교까지 줄을 맞춰 행진하는 집단등교 제도는 기본적으로 출결 및 규율 준수에 대한 통제 기제이다. 그러나 여학생들은 이러한 통제의 시간을 친구들과 모여 잡담을 나눌 수 있는 즐거운 시간으로 여기는 방식으로 이를 전유한다.²⁷⁾

정치교육 관련 연구에 있어서 교육의장에서 일어나는 지배적 헤게모니와 대안적 헤게모니 간의 긴장관계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헤게모니라는 관점에서 보면 학교는 헤게모니와 대안적 헤게모니가 옹호·상박의 다툼을 벌이는 장이다.²⁸⁾ 그러나 북한과 같이 거대한 ‘억압적

은 마당 정리하다가 철봉대가서 철봉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이유는 의도적으로 내려가서 모든 사람이 잡담도 하고 평온하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이죠. 내가 이 방에 들어오면 강의를 하고 어찌고 하면 시간에는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없죠. 그럼 그 시간에 내려가서 풀 뽑기도 하고 마당도 정리하고 빗자루질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앉아서 얘기도 하다가 그러다 헤어지는 거죠. 그 이외의 시간은 관여를 안 하니까. (그래도 업무시간 끝났는데 집에 가서 장사할 거리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하라고 그러면 좀.)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이 익숙해져서 그 시간에 사람들이 사람하고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는 수다 떨어야 되는데 그 시간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제 뭐 어찌고 그러는데, 수업도 두 강의를 하고 없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12시 내려가면 식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선생들과 공동된 환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다섯 시 이후에 그 시간이 저희도 대단히 기다려지더라고요.” 북한이탈주민 면접 녹취록(40대 여성, 2005년 탈북, 함경북도 함흥 출신, 교원), 2008.4.23. 녹취내용 중 ()는 연구자의 질문임.

27) “우리가 어릴 때도 보면 지금도 내 딸도 하여간 그 모임장소에 여자들 같은 경우에 대단히 빨리 나가기를 선호했어요. 왜, 옷차림도 깨끗하게 주름도 꼭 새겨, 가방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휴식시간에 밖에서 공원에서 아이들이 재잘거릴 수 있는 시간은 그 시간 밖에 없거든요. 남자들은 몇몇어서 뭐 제기차기, 재네끼리 모여서 제기차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하지만은 여자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뭐 어쨌든가 어제저녁에 어쨌든가. 어제 저녁에는 어쨌든가 이런 잡다한 수다를 그 시간에 많이 하는 거지.” 북한이탈주민 면접 녹취록(40대 여성, 2005년 탈북, 함경북도 함흥 출신, 교원), 2008.7.29.

28) 김기석, 『교육사회학탐구』, 79쪽.

국가기구'와 강력한 지배이데올로기가 작동되고 있는 국가에서는 교육정책과 교육과정을 국가가 전적으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한 대안적 헤게모니 형성의 가능성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다양한 수준의 저항과 대안적 헤게모니 형성의 가능성은 정책과 공식적 교육 과정이 아니라 학교 문화와 학생들의 일상, 잠재적 교육과정 등을 좀 더 가까이에서 들여다볼 때 관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 구조에 대한 부분적 '간파'²⁹⁾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의 공식적 규율에 저항하고 그들 나름의 '반학교문화'를 만들어나가는 중등학교 남학생들의 교육일상에 대한 탐구를 통해 우리는 그러한 가능성에 다가갈 수 있다.³⁰⁾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교육일상은 학교라는 공교육의 장에 국한되지 않는다. 특히 사회경제적 격동의 시기에는 일상적 삶 자체가 교육과 학습의 중요한 공간이 된다. 사회경제적 변화에 수반되는 문화적 변동이나 문화접변 현상을 체험하고 수용하고 대응하는 과정 자체가 일종의 전환학습과정이다. '전환학습(transformative learning)'이란 자신의 경험과 모순적인 의미체계에 대한 비판적 반성을 통해 좀 더 통합적인 의미체계를 구성해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메찌로우(J. Mezirow)에 따르면 학습이란 경험의 의미를 새롭게 개정해나가는 과정이다. 사람들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의미관점을 형성해나간다. 자신의 의미관점에서 타인과 다른 점을 발견하거나 일상적으로 문제해결이 곤란한 전환점을 맞이할 때 의미관점의 재검토와 전환이라는 전환

29) '간파'란 문화적 형태 안에 있으면서 그 구성원들이 처한 삶의 조건과 전체사회 속에서의 그들의 위치를 꿰뚫어 보려는 충동을 의미한다. Willis, P., 『교육현장과 계급재생산』, 김찬호·김영훈 옮김, 181쪽.

30) 북한 중등학교의 반학교문화에 관해서는 조정아, "북한 중등학교 규율과 '반학교문화'," 한국교육사회학회, 『교육사회학연구』, 제14권 1호(2004) 참조.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³¹⁾ 사회라는 좀 더 넓은 교육의 텍스트를 사람들이 읽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전환학습과 의미관점의 변환에 대한 탐구는 북한 사회에서 대안적 해계모니의 형성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열쇠를 제공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재학 중에 “고지식하게 모범생활을 했던” 사람이 경제난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이나 대북방송을 통해 자신이 “의심 한번 못” 해본 새로운 생각을 접하고 그 충격을 소화하는 과정은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의식, 새로운 심성이 어떻게 탄생하는가에 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³²⁾

31) Mezirow, J., *Transformative Dimensions of Adult Learning*(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1991), p.5.

32)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북한이탈주민의 구술자료는 사회적 변화에 따른 인식의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준다. “학교 다닐 때는 못 느꼈죠. 그때는 오직 그저 바깥일이 전혀 이렇게 많이 넓고, 많이 부닥쳐 보고 그렇지 못하고 오로지 그저 학교생활만, 저는 정말 고지식하게 고조 모범생활 했으니까. 그거 몰랐죠. 군대 갔다 오고, 좀 이렇게 사회생활. 그때 제가 군대 갔다 오고 제가 의가사제대 돼서 왔을 때, 김일성이 94년도에 죽고, 장사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서, 이케 이야기 듣고. 그 전까진 전혀 사회현실을 잘 몰랐죠. 오직 저기서 소위 주체사상 교육 세뇌교육만 받았으니까. 오직 우리 북한만이 세상에서 가장 으뜸되는 뭐,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제도이고, 그 가장 우리 소위 인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복지 다 정책 잘해주는 나라 그케만 알고 있었는데, 장사 다니면서 사회가 완전 험악해지고 하면서 조금 알았죠. 그 우연히 난 그 라디오 주파수를 이케 막 돌리다가, 홀 듣는데, 대북방송 탁 트는데, 그때 김영삼시절이었거든요. 남북논단인가, 오후 네 시경인가, 그때 처음으로 대북방송 들으면서. 남북논단시간에 한국 아나운서 남자 아나운서가 탁 말하는 게, 북한정권을 완전히 군부독재정권이라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 처음으로 난 김정일 그때까지도 전혀, 우리 북한 정권에 대해서 난 의심 한 번도 못하고 이 자기가 태어난 나라에 대해서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남쪽에서 남북논단시간에 말하는 군부독재정권, 국민을 삼백만이나 굶어죽이고도, 응, 아직도 군부독재. 응, 완전히 철창 없는 감옥이라고 막.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그 고조, 콕 충격이. 순간적으로 충격이 컸죠. 근데, 거기 그 순간적인 그 말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 딱 돼있는데, 너무나 충격이 컸죠. 그, 아, 남쪽에서는 우리 소위 김정일, 그때까지 김정일이 체제에 대해서 나 한 번도 반신반의해본 적도 없고 그랬는데, 그 방송을 듣는 순간부터 의심하기

셋째, 교육을 둘러싸고 사람들 간에 이루어지는 소통의 구조와 관계망, 타협과 흥정의 양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행위자 간의 역동은 거시적·구조주의적 관점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해석학적 전통의 관점에서 행위자의 차원에 초점을 맞추고 관찰할 때 포착가능하다. 교육사회학 분야에서는 상호작용이론의 틀을 적용해, 교육상황을 구성하는 행위자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 교육관료 간의 상호작용과 대응전략 등을 연구하는 미시적 연구가 수행되어왔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행위자의 역동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치밀한 묘사’³³⁾를 할 수 있는 참여관찰 등의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수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식과 방법론을 복한 교육 연구에 적용하고자 할 때, 우리는 현장 관찰의 불가능성이라는 근본적인 난관에 부딪힌다. 그런데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행위자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에 초점을 둬으로써만이 공식문헌상의 담론과 수사학을 넘어서서 복한 교육의 실재에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복한의 교육 현장에서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입시와 진급, 성적 등과 관련되어 안면관계를 기초로 한 사적 관계망이나 뇌물을 통한 흥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입시비리와 시험부정은

시작했고, 아, 우리 복한 체제가 무슨 모순점이 있구나.” 복한이탈주민 면접 녹취록(20대 남성, 2007년 탈북, 함경북도 함흥 출신, 장사), 2003.11.27. ()는 연구자의 질문임.

- 33) ‘치밀한 묘사(thick description)’는 인류학자 기어츠(G. Geertz)가 제시한 개념으로, 일상의 여러 계기를 통해 표출되는 상징적 언명이나 행위들에 대한 망라적 서술을 지향함으로써 분석적 개념에 의한 직접적인 파악이 불가능한 “가장 비밀스러운 관계들과 생각들”이 스스로 드러나게 하는 방법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 앞에서 스스로를 표현하는 말, 몸짓, 그림, 의식과 의례 등 여러 가지 상징적인 형태의 표현들을 되도록 세밀하고 포괄적으로 관찰하고 묘사함으로써 낯설고 이질적인 경험과 문화의 세계에 접근하는 것이다. 안병직, “‘일상의 역사’란 무엇인가,” 41쪽.

경제난으로 인해 교직원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교육예산이 각 대학에 충분히 지원되지 못해 이의 일부를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대학입학자격을 거래하려는 대학 당국의 의도, 입시비리를 눈감거나 이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생활고를 덜어보려는 교직원의 의도, 이러한 방법을 통해 대학 졸업증을 획득하려는 학생 및 학부모의 의도가 맞물린 결과이다. 또한 이는 결핍경제 체제하에서 서로의 인간관계에 기반을 두고 편의를 교환하는 비금전적 거래관계인 ‘블라트’의 관행이 시장화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변질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결과적으로 교육과 교육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교육의 질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³⁴⁾

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이와 유사한 행위자 간의 흥정과 담합의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의 이공계대학에서는 학과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1년에 3주에서 6주간의 실습시간이 배정된다. 실습은 공장이나 광산 등 학과와 관련된 생산현장에서 진행된다. 북한에서 수업시간수를 포함한 교육과정은 ‘법적 규정’으로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실습수업을 다른 수업형태로 대체하거나 생략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뿐 아니라 노동을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이 북한의 교육 원리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에서 이러한 실습교육이 매우 중시된다. 그러나 경제난으로 실습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워지자 실습시간의 운영을 둘러싸고 행위자 간의 타협과 흥정이 활발해진다. 실습에 필요한 예산은 대학당국이 아닌 학생들의 모금을 통해 충당되는데, 이는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참가하는 대신에 실습지에 나가 실습은 형식적으로 진행

34) 입시비리와 시험부정 실태에 관해서는 이교덕 외,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서울: 통일연구원, 2007), 181~188쪽 참조.

하고 장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대가이다. 실제 실습수업은 실습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형식적으로 진행된다. 그 과정에서 교사와 공장 측과의 사이에도 거래관계가 성립된다. 교사들은 공장 관계자들에게는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실습날짜를 다 채웠다는 청구서와 사례비를 주고, 실습확인서를 받는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대학 당국은 교수의 집행을 보장한다.³⁵⁾

넷째,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북한 주민들의 학습생애에 관한 연구이다. 개인은 생애시간 동안 직면하게 되는 사회적 실재

35) 실습을 두고 일어나는 행위자 간의 타협과 흥정의 과정을 북한에서 이공계대학의 교수를 했던 한 북한이탈주민은 다음과 같이 구술하고 있다. “100을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을 줘서 실습 흥내를 내. 그리고 갈 때 공장기업소 관계자들한테 뭘 좀 해. 적당히 주고서 와. (알아서 할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런 거지요. 그리고 100원을 받는 거야. 3일하고도 한 달 했다. 1주일 정해진 과정안의 날짜를 다 받아가지고. …… (그럼 공장은 무엇을 먹고 그것을 해주나요? 원래 그렇게 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공장은 공장 지배인, 부기 과장 이런 사람들 주머니에 넣어주는 거지요. 숙박도 들어가는 게 있어요. 공장에서 숙식하는 조건으로 이런 거 주는 거예요. 즉시지불청구서 같은 것도 밀어 넣어주는 거예요. (공장예? 공장은 그걸 좀 더 받는 거군요.) 그럼 그 공장은 100원어치 그냥 다 받는 거지. 애네들 하루만 먹고 재워줬는데 일주일 먹고 재워줬다. 그까짓 거 쓸 데 없는 종이 찌가리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공장 수입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좋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뇌물 좋고. …… 대학 자체에서 실습 가려면 네 돈 가지고 가, 그래요. …… 알아서 가지고 나가는데 학생들은 대학 밖을 벗어나기 좋아하죠. 다 일 있잖아요. 실습 갑시다, 갑시다. 돈이 없대요. 우리 알아서 냅시다. …… 학생들은 바람 쐬고 들어오는 거지요. 그런데 나갈 때 그냥 안 나가요, 장사를 하지. (아, 또 그런 게 있군요.) 위치를 잡아요. 선생님 이번에 실습지 어디로 잡을 겁니까? 과정 안에 검덕이다, 룡양이다 거기서 지가 돈 될 것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자기가 짚어요. 돈이 될 만한 곳을 짚어요. 우리 자체도 그것을 생각해 되고. 우리 자체도 집 살림 하는 사람이니까 돈 되는 곳을 잡아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학생들과고 교원들과고 맞아 떨어지면 실습가자. 학생들은 실습 갔다 와서 돈 되는 것을 가져와서 되파는 것으로 해서 실습비 낸 것을 충당하고. …… 우리 애들이 잘 따라줬어요.” 북한이탈주민 면접 녹취록(30대 남성, 2004년 탈북, 양강도 출신, 대학교수), 2008.1.29. ()안은 연구자의 질문임.

를 자신의 행위를 통해 나름대로 해석하고, 이에 대응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이력, 즉 생애사를 만들어간다. 개인에게 주어진 사회적 규범과 질서는 그 자체로 개인사를 규정하거나 혹은 개인사 속에서 재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생애사적 작업’을 거쳐 특정한 방식으로 형상화된다. 이렇게 사회문화적 질서와 규범은 재생산되면서 동시에 새롭게 생산된다.³⁶⁾ 따라서 개인의 생애사는 한 개인의 삶의 기록일 뿐 아니라 개인이 그 사회와 상호작용한 기록이고, 특정한 사회가 개인의 삶의 역사에 침투하여 작용한 특정한 방식에 대한 기록이다.

개인의 생애사가 지닌 이러한 특성에 착목하여 교육학 분야에서에서도 교사와 학생 등 교육 현장의 행위자들의 생애사를 교육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교육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생애사 연구들은 교사들의 정체성과 교사되기의 과정, 직업의식 형성 과정, 교사로서의 성장 과정 등 주로 교사의 삶과 성장 과정을 다룬 연구들과, 학생들의 삶과 학교생활을 학교문화와 교육과정 실행의 관점에서 연구한 논문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³⁷⁾

북한 교육 연구에 있어서도 생애사 연구는 중요하면서도 유용한 접근방법이자 연구 주제이다. 북한 교육의 형성을 설명하는 일은 “어떠한 사회적 힘이 작용해, 한편에서 인간의 심리적 특질이 형성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교육체제의 특질이 형성되는가”를 설명하는 일, 즉 “사회형성, 교육형성, 인간형성이라는 삼자 간의 복합적인 상호 연계와 매개작용”³⁸⁾을 밝히는 일이며, 이는 한 개인의 교육생애라는 창을 통

36) 이희영, “사회화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한국사회학』, 제39집 3호 (2005), 129~130쪽.

37) 생애사 접근방법을 통한 교사와 학생들의 삶에 관한 국내외의 교육학 연구 동향은 김영천·허창수, “생애사 텍스트로서의 교육과정연구,” 『교육과정연구』, Vol.22, No.4(2004) 참조.

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4. 북한의 교육일상 연구에서 구술자료의 활용

북한 연구의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북한 교육 연구의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자료 문제이다. 현재 북한 교육 연구에서 활용 가능한 문서자료는 1950년대 이전까지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노획문서’를 제외하면 신문이나 정기간행물 등 북한의 공식간행물과 교과서 뿐이다. 이러한 공식간행물들은 현실 은폐성, 관점의 일방성, 이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공의 현실을 실재의 현실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³⁹⁾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더라도 이러한 문헌자료를 통해 북한의 교육일상 세계에 접근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일상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행위자의 목소리를 담은 역사적 자료와 현장연구를 통한 광범위한 자료 수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채록한 구술자료는 현장연구와 광범위한 자

38) 김기석, 『교육역사사회학』, 111~127쪽.

39) ‘현실 은폐성’이란 사회주의 사회의 공식문헌에 지도부의 희망, 현실, 현존체제의 속성과 가공의 사회주의 체제의 기대가 혼합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 과정과 공장관리의 정치(1953~1970): ‘수령제’ 정치체제의 사회경제적 기원”(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관점의 일방성’이란 북한의 공식문헌이 당지도부의 공식적인 관점으로 서술되어 있어 이와 반대되는 견해나 일반 민중의 관점을 읽기 어려운 점을 말한다. ‘담화의 이중성’이란 문헌에서 나타나는 주장이나 표현이 때때로 현실과 반대되는 양상을 표상하는 경우가 있음을 일컫는 말이다. 이종석, 『새로 쓴 현대 북한의 이해』(서울: 역사비평사, 2000), 44~45쪽.

료의 수집이 불가능한 현재 상황 속에서 북한의 교육일상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다. 구술자료는 문헌자료가 지니는 ‘위로부터의 시각’을 극복하고 행위자, 특히 공식적인 역사서술에서 제외되어 온 기층민중 중심의 ‘아래로부터의 시각’을 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연구의 폭과 관점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양한 행위자들의 구술자료는 그들의 반복되는 일상적 활동을 보여줄 뿐 아니라 일상생활을 통해 ‘그들의’ 세계를 ‘전유하는’ 방식을 드러낸다. 또한 다양한 집단의 시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행위 주체의 다층성과 다자적 관점을 잘 반영하고 있다. 북한 교육 연구에서 구술자료의 활용은 당국에 의해 생산된 일차적 자료가 갖는 시각의 일방성과 한계를 극복하고 실제 교육 과정과 행위자의 행동, 경험, 의미를 분석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또한 공식 문헌상에서는 비정상적인 사례로 나타나는 ‘이례적 정상’의 정상성을 확인함으로써 북한의 실제 교육일상의 모습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 관련 문헌 속에서는 계도대상으로 서술되는 문제학생이 실제 학교에서는 지극히 정상적 사례이며, 오히려 모범생이 현실에서는 드문 사례라는 점을 구술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험의 재구성을 역사 연구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일상사가들에게 경험자의 증언보다 더 중요한 자료는 찾기 어렵기 때문에 구술사와 일상사 연구는 긴밀하게 결합될 여지가 있다. 아울러 구술사는 사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록을 남기지 못한 대다수의 서민들이 역사 서술에 참여해 스스로 말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지향하는 일상사가들에게 기존 사료가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⁴⁰⁾ 이는 문헌

40) 안병직, “‘일상의 역사’란 무엇인가,” 42쪽.

자료도 드물 뿐 아니라 현장연구가 불가능한 북한 연구 분야에 있어 더욱 적합성을 지니는 지적이다.

이러한 이점이 있는데도 증거능력과 주관성 등의 측면에서 구술자료의 문제점과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비판의 초점은 구술자료가 문서 기록에 비해 기억의 선택성, 정확성 등의 문제로 인해 신뢰성이 떨어지며 주관적이라는 것이다. 김기석·이향규는 구술자료가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 두 가지 점에서 해명을 하고 있다.⁴¹⁾ 첫째, 자료의 신뢰성의 문제는 자료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문서 기록도 그 기록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기록자의 주관, 과장, 은폐와 기록 생산의 맥락으로 인한 정치적 편향성 등의 문제가 개입할 뿐 아니라 사실 자체가 왜곡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따라서 자료의 형태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문서자료이거나 구술자료이거나 간에 사료비판, 교차검증 등을 통해 자료의 증거능력을 끊임없이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구술자료는 공식적 문서기록이 담지 못한 “평범하고, 혼란된 현실, 다양한 내부 관점”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한 질문과 관련해서는 문서기록 이상의 설명력을 지닌다는 것이다.

구술자료의 주관성에 관한 논쟁에 있어 구술자료는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이 아니라 구술의 주체가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현재 기억하는 바’를 구술 채록의 과정에서 ‘이야기한’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구술자료는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했는지에 더해 그들이 무엇을 했다고 믿고 있는지, 과거의 일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해준다. 연구자가 밝히고자 하는

41) 김기석·이향규, “구술사: 무엇을, 왜,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교육사교 연구 노트』, 제9호(1998), 194~200쪽.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이러한 구술자료는 믿을 수 없고 쓸모없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진실에 다가가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 구술사기들의 작업은 사실에 대한 어떤 기록이 ‘사실’인가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왜 특정한 방식으로 왜곡된 기억을 하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 또한 중요한 연구 과제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⁴²⁾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으로 인해 북한 연구를 할 때 활용되는 북한 이탈주민의 구술기록에 대해서는 구술자료의 문제점에 대한 경계의 정도가 높아진다. 북한이탈주민이 결코 전체 북한 주민을 대표할 수 없으며, 정치 성향 측면에서 특정한 경향성을 지니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구술 내용을 주관적으로 가공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북한에서의 개인적 경험에 대한 사후적 재평가와 재해석의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이 비판의 요지이다.

이와 관련해서 최봉대는 북한이탈주민의 구술기록은 세 가지 점에서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수집한 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⁴³⁾ 첫째,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의

42)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구술사가 포르텔리(A. Portelli)는 1949년 시위 과정 속에서 사망한 한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이탈리아 철강노동자들의 집단적인 기억의 왜곡을 통해 노동자들의 신념과 집단적 무의식의 구조를 분석한 바 있다. 한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집단적인 기억의 왜곡은 당시의 동료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무력할 수밖에 없었던 집단적 패배감으로 인한 기억의 억압과 그러한 상처를 극복하고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무의식적인 기억의 전치의 결과였다. Portelli, A., *The Death of Luigi Trastulli and Other Stories: Form and Meaning in Oral History* (Albany: SUNY Press, 1991). 이탈리아 노동자들의 잘못된 기억과 진술은 객관적 사실의 척도에서 볼 때는 허구이지만, 심리학적으로는 ‘진실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세상을 만들어내는 주관적 감성구조”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 남신동, “구술사와 기억의 역사사회학 1,” 『교육비평 2006』, 제20호 (2006), 302쪽.

43) 최봉대, “탈북자 면접조사 방법,” 『북한연구방법론』(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3), 329~334쪽.

문제이다. 신뢰성이 중요한 문젯거리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은 피면 접자가 기억의 재생이라는 불완전한 방식에 의존해 기술한다는 구술 자료의 특성에 더해, 피면접자가 현재 자신의 처지를 고려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하려고 하거나, 기밀 준수가 강조되는 북한사회의 속성상 한 개인이 알 수 있는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신뢰도와 타당도는 계량적 분석에서 평가의 척도가 되는 지표로, 타당도는 평가, 측정, 예언하려고 하는 내용을 어느 정도 충실하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개념이며, 신뢰도는 얼마나 정확하게, 오차 없이 측정하고 있느냐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구술자료를 계량적 데이터로 변환시켜 계량적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면 이는 자료의 제약으로 인한 근본적 한계를 갖게 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구술자료를 활용한 북한 교육연구는 질적·해석적 접근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때에도 구술자의 기억의 왜곡이나 의도적이거나 무의식적인 사실의 은폐와 축소, 확대 등으로 인한 신뢰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톰슨(P. Thompson)은 구술자료의 신뢰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구술자료의 가치와 활용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세 가지 단계를 거칠 것을 권고하고 있다.⁴⁴⁾ 첫째, 동일인의 구술자료 간의 내적 일관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동일인에 의해 생산된 구술자료 내에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극단적인 모순과 불일치, 특정 영역에서의 반복된 응답 거부 등은 구술자가 자신의 기억을 의도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억압, 은폐, 과장, 거짓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44) Thompson, P., *The Voice of the Past: Oral History*(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pp.239~241.

인터뷰 상황에서 구술자의 비언어적인 반응, 즉 침묵, 울음, 미묘한 표정의 변화와 몸짓 등을 통해서도 포착할 수 있다. 둘째, 동일한 사건에 관한, 또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생활공간 속에서 생활했던 다른 구술자의 구술자료와 교차검증하는 것이다. 셋째, 구술자의 경험의 맥락과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그의 생애 과정, 인터뷰가 진행되는 상황과 구술자와 연구자 간의 관계 등 좀 더 넓은 맥락 속에서 구술자료를 해석하는 것이다.

북한의 교육일상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구술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이와 같은 방법론적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료의 주관성과 신뢰성의 문제가 존재하는데도 구술자료가 여전히 유의미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바로 구술자료가 갖는 ‘주관성’ 때문이라는 점이다. 개인의 기억은 사실이나 정보의 요소와 함께 구술자가 그것에 부여한 의미와 감정을 담고 있다. 연구자가 알고자 하는 것이 구술자의 주관적인 경험과 생각, 신념, 자신의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와 스스로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 구술을 통해 드러나는 구술자의 세계관과 감정의 구조 등이려면 구술자료는 주관적일수록 더욱 가치 있다. 북한 교육에 관한 연구에서 이러한 ‘주관적’ 자료가 더욱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경험을 기억하고 해석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교육과 사회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며, 자신의 경험에 대한 끊임없는 재해석 과정과 생애사적 의미의 변화 과정 자체가 일종의 학습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는 자료의 ‘주관성’이 아니라 주관적인 자료를 통해 무엇을 탐구할 것인가이다. 구술자료는 그 가치를 꿰뚫어볼 수 있는 연구자의 적합한 질문과 만날 때 빛을 발한다.

북한이탈주민의 구술기록에서 문제점으로 최봉대가 두 번째로 지

적하고 있는 것은 자료원의 ‘오염’ 가능성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입국 이전 중국 등의 중간 경유지에서 장기 체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곳에서의 체험이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시각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학습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북한에 거주할 때는 자연스럽게 수용해온 적응적 생활양식에 대한 사후적 탈정당화와 의미의 재평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에게서 볼 수 있는 북한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본래부터 자유주의적 견해를 가지고 부적응적인 생활을 해온 것인지 아니면 탈북 이후 자기발전적 학습의 효과인지를 판별하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⁴⁵⁾

북한이탈주민의 구술기록뿐 아니라 모든 구술자료는 구술자가 체험한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 아니라, 과거 체험에 대한 구술자 자신의 현재의 기억이자 해석이다. 따라서 구술기록에서 구술된 경험의 사실성 여부에 초점을 맞출 때에는 구술자의 ‘현재적 관점’을 어떻게 여과할 것인가가 큰 문제가 된다. 특히 ‘탈북’이라는 인식 관점의 변화가 되는 생애사건을 경험한 북한이탈주민들의 구술기록에 있어서 사실적 ‘진실성’과 ‘사후 재평가’의 문제는 피해갈 수 없는 난관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술자의 경험과 기억이 형성되고 삶의 과정을 통해 기억이 변형되는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맥락은 개인이 환경에 영향을 주고 환경이 개인의 삶을 형성하는 역동적인 과정을 말한다. 구술자 자신의 맥락이 개인적 서술의 형성과 이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⁴⁶⁾ 이러한 맥

45) 최봉대, “탈북자 면접조사 방법,” 331~332쪽.

46) 윤택립, “기억에서 역사로: 구술사의 이론적, 방법론적 쟁점들에 대한 고찰,” 한국문화인류학회, 『한국문화인류학』, 제25집(1994), 286쪽.

락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개별 경험의 사실성 여부를 단편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경험과 증언들을 생애사적 연속선상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구술자가 과거의 경험을 현재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생애사적 관점을 재구성함으로써 이야기된 생애사의 재구성을 통해 과거 체험에 대한 개인의 생애사적 전략과 행위지향을 포착해야 한다. 이는 생애사의 전개과정에서 역동적으로 구성되는 구술자의 행위지향의 형식을 이해할 때 가능하다.⁴⁷⁾ 이러한 접근은 경험의 구성적 성질, 즉 경험의 주체가 어떻게 다르게 구성되었고, 사람의 시각이 어떻게 구조화되었는가에 대한 질문⁴⁸⁾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가 교육학적 탐구의 관점을 전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뿐 아니라 구술의 내용은 구술이 이루어지는 시점의 상황과 맥락, 연구자와 구술자간의 관계 등에도 영향을 받는다. 특정한 방식의 유도성 질문이 구술자의 이야기에 영향을 줌은 물론이다. 따라서 구술 채록 시 구술자와 연구자 간의 라포 형성, 구술자의 자유로운 자기서술이 가능한 환경 조성, 개방형 질문에 의한 구술 확보 등의 기본조건을 갖추어야 한다.⁴⁹⁾

북한이탈주민 구술기록의 문제점으로 세 번째로 지적되는 것은 자료원의 대표성 문제이다. 이 문제의 핵심은 탈북자가 ‘표준적인’ 북한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전체적인 분포 면에서 보면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출신성분이나 토대가 북한의 기준

47) 이희영, “사회학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134쪽.

48) 윤택림, “기억에서 역사로-구술사의 이론적, 방법론적 쟁점들에 대한 고찰,” 282쪽.

49) 구술자료 채록을 위한 인터뷰 방법론에 관해서는 김기석·이향규, “구술사: 무엇을, 왜, 어떻게 할 것인가?”; Yow, V. R., *Recording Oral History: A Practical Guide for Social Scientist*(London: Sage Publications, 1994) 참조.

에서 볼 때 ‘불량한’ 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다.⁵⁰⁾

계량적 연구에서는 모집단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한 표집이 이루어졌는지가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는 기본적인 전제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이탈주민을 통한 북한 연구는 출발점에서부터 모집단의 특성을 고르게 반영하지 못한 특정한 부분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일종의 편향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나 구술자료 등으로 북한의 ‘객관적 실태’를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출발점에서부터 그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의 전략이 가능하다. 첫째, 양적 자료를 활용하던 구술자료를 활용하든지 간에 연구의 성격이 계량적 분석에 있다면 그 한계를 그대로 안고 가되 장기간의 추세분석을 통해 북한 사회가 움직이는 일종의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 사회의 통제에 관한 분석을 하고자 할 때 북한이탈주민들을 통해 얻은 자료가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일정 시점에서의 ‘평균적인’ 통제와 통제 이완의 정도는 아니다. 그렇지만 장기간의 데이터의 누적을 통해서 그 변동 추세를 분석할 수는 있을 것이다. 물론 그 경우에도 출신지역, 출신성분, 직업, 성별 등 답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들을 고려한 표본과 사례 선정이 중요하다.

둘째, 연구의 질문을 ‘질적 연구’의 관점에서 하도록 전환하는 것이다. 질적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사례의 ‘대표성’이나 ‘전형성’은 아니다. 예외적인 사례라고 할지라도 그 사례가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말해줄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즉, 질적 연구에서 다루는 개별

50) 최봉대, “탈북자 면접조사 방법,” 332쪽.

사례는 그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그 사회에 관한 종류의 징후를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대표성과는 거리가 먼 개인의 개별 사례를 통한 사회적 징후 읽기가 가능한 것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생애사는 사적인 동시에 사회적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개인의 과거에 대한 구술 내용은 구술자 개인의 직간접적인 체험에 대한 서술이라는 점에서 모두 ‘사적’인 동시에 개인의 생애사가 개인이 처한 사회역사적인 행위공간 속에서 타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구성된다는 점에서 ‘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⁵¹⁾ 생애사를 매개로 드러나는 경험의 특별한 유형들은 그 자체로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의 특정 조건에서 포착되는 생활세계의 ‘구체적 일반성’을 재현하고 있다.⁵²⁾ 따라서 질적 연구의 관점에서 볼 때 문제는 그 사례의 ‘대표성’이 아니라 그 사례가 보여주는 ‘구체적 일반성’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이다.

5. 마치며

이 글에서는 북한의 교육일상 연구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교육일상의 개념을 검토하고 북한 교육일상 연구의 외연과 구체적인 연구주제를 제시했다. 북한 교육일상 연구가 포괄하는 영역으로 첫째, 사회 구성원들의 교육 관련 일상생활과 경험에 대한 분석, 둘째, 교육의 장 또는 교육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분석, 셋째, 교육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구조와 행위 간의 역동에

51) 이희영, “사회학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124쪽.

52) 위의 글, 133쪽.

관한 분석이라는 세 가지 영역을 제시했다.

북한 교육일상 연구의 주요 주제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주제를 제안했다. 첫째, 역사사회학적 탐구를 통해 해방 후 북한의 교육의 변화와 지속성, 특히 경제난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교육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층적인 변화의 양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일상사적 접근을 통해 교육의 생산성과 계급재생산 기능 문제를 다룰 수 있다. 둘째, 이데올로기 재생산구조로서의 정치교육과 관련된 일상에 관한 연구이다. 교육일상에 관한 탐구를 통해 교육과 관련된 일상의 관성과 행위자가 창출하는 전유의 공간 사이의 긴장관계, 강제와 동의의 창출, 적극적 동의와 다양한 저항행위 사이의 다양한 측면들을 포착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교육의 장에서 일어나는 지배적 헤게모니와 대안적 헤게모니 간의 긴장관계와 일상적 삶 속에서 일어나는 ‘전환학습’의 과정에도 주목해야 한다. 셋째, 교육을 둘러싸고 사람들 간에 이루어지는 소통의 구조와 관계망, 타협과 흥정의 양상에 관한 연구이다. 넷째,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의 북한 주민들의 학습생애사에 관한 연구를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의 교육일상 연구의 주요 자료원천으로서 구술자료가 갖는 이점과, 북한이탈주민 구술기록 활용상의 쟁점에 대해 검토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구술기록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료 자체의 신뢰성, 주관성, 대표성 등이라기보다는 자료의 풍부한 의미를 건져 올릴 수 있는 연구자의 그물이라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현재 북한연구에 있어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심문과 취조에 가까운 방식으로 행해지는 일부 심층면접 방식과, 연구자의 연구관점에 부합하는 단편적 증언만을 선별해 활용하는 연구 방식은 재고되어야 한다.

행위자들의 역동과 그들이 경험하는 구체적인 일상을 통해 북한의 교육, 인간, 사회의 형성의 문제를 풀고자 하는 연구자는 다양한 전략, 방법, 경험적 자료를 자신의 도구로 동원하는 브리콜뢰르(bricoleur)⁵³⁾가 되어야 한다. 향후 이 연구에서 제시한 기본적인 관점과 연구주제를 기초로 다양한 방법론을 동원해 북한의 교육일상에 관한 연구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시도는 브리콜라주나 몽타주, 퀴트 만들기⁵⁴⁾처럼 북한 교육연구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는 관찰자의 선입견과 연구대상의 접근불가능성을 다양한 전략과 방법들을 통해 우회하거나 돌파함으로써 북한 교육의 실체에 다가가는 작업이 될 것이다.

■ 접수: 10월 28일 / ■ 채택: 12월 4일

53) 이 용어는 레비스트로스(C. Lévi-Strauss)가 부족사회의 지적 활동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부족사회의 문화 담당자인 브리콜뢰르는 한정된 자료와 도구를 가지고 광범위하고 다양한 일을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이전에 산출된 물건들의 나머지로 변통하는 법을 활용했으며, 그 결과 이전 작업에서 작업의 목적이 되었던 것이 다음 작업에서는 작업의 수단의 역할을 하게 된다.

54) Denzin, N. K. and Y. S. Lincoln, "Introduction: The Discipline and Practice of Qualitative Research," Denzin, N. K. and Y. S. Lincoln(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California: Sage Publications, Inc., 2005), pp.4~5.

참고문헌

- 강수택, 『일상생활의 패러다임』(서울: 민음사, 1998).
- 김기봉, “주체사상과 ‘일상의 정치화’”(동국대학교 북한일상생활연구센터 제1회 북한 일상생활연구 토론회 자료집, 2008).
- 김기석, “서론: 제도교육 그 신화와 실상 탐구,” 『교육사회학탐구』(서울: 교육과학사, 1989).
- _____, 『교육역사사회학』(서울: 교육과학사, 1999).
- 김기석·이향규, “구술사: 무엇을, 왜,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교육사고 연구 노트』, 제9호(1998).
-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 과정과 공장관리의 정치(1953~1970): ‘수령제’ 정치체제의 사회경제적 기원”(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김영천·허창수, “생애사 텍스트로서의 교육과정연구,” 『교육과정연구』, Vol.22, No.4.(2004).
- 김용학, 『사회구조와 행위』(서울: 나남출판, 2003).
- 남신동, “구술사와 기억의 역사사회학 1,” 『교육비평』, 제20호(2006).
- _____, “구술사와 기억의 역사사회학 2,” 『교육비평』, 제21호(2006).
- 박재환 엮음, 『일상생활의 사회학』(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2).
- 송광성 외, 『북한 청소년 생활』(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1993).
- 신효숙, “북한 교육 연구의 성과와 과제,” 『현대 북한 연구의 쟁점 2』(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7).
- 안병직, “‘일상의 역사’란 무엇인가,” 안병직 외, 『오늘의 역사학』(서울: 한겨레출판, 2002).
- 윤택림, “기억에서 역사로: 구술사의 이론적, 방법론적 쟁점들에 대한 고찰,” 한국문화인류학회, 『한국문화인류학』, 제25집(1994).
- _____, 『문화와 역사연구를 위한 질적 연구방법론』(서울: 도서출판 아르케, 2004).
- 이교덕 외,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서울: 통일연구원, 2007).
- 이종석, 『새로 쓴 현대 북한의 이해』(서울: 역사비평사, 2000).
- 이희영, “사회학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한국사회학』, 제39집 3호(2005).
- 임지현·김용우 엮음, 『대중독재 3』(서울: 책세상, 2007).

- 장세룡, “미셸 드 세르토의 일상과 민중문화,” 한국서양사학회, 『서양사론』, vol.82(2004).
- _____, “앙리 르페브르의 일상생활 비판,” 호남사학회, 『전남사학』, 제25집 (2005).
- 조정아, “북한 중등학교 규율과 ‘반학교문화,’” 한국교육사회학회, 『교육사회학연구』, 제14권 1호(2004).
- _____, “‘교육서의 실리주의’와 교육의 불균등발전: 2000년대 북한 교육의 변화,” 『교육사회학연구』, 제17권 4호(2007).
- 최봉대, “탈북자 면접조사 방법,” 『북한연구방법론』(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3).
- _____, “1990년대 말 이후 북한 도시 사적 부문의 시장화와 도시가구의 경제적 계층분화,” 『현대북한연구』, 11권 2호(2008).
- 한만길 엮음, 『북한에서는 어떻게 교육할까』(서울: 우리교육, 1999).
- 홍민, “북한 연구방법론 재고,” 한국정치연구회, 『정치비평』, 2003년 상반기 (2003).
- _____, “북한 일상생활 연구의 방향과 방법론”(동국대학교 북한일상생활연구센터 제2회 북한 일상생활연구 토론회 자료, 2008).

- Abrams, P., *Historical Sociology*(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82).
- Althsser, L., “Ideology and the Ideological Apparatuses,” *Lenin and Philosophy* (N.Y.: Monthly Review Press, 1971).
- Apple, M. W., *Ideology and Curriculum*(London: Routledge & K. Paul, 1979), 『교육과 이데올로기』, 박부권·이혜영 옮김(서울: 한길사, 1985).
- Clark, M. C., “Transformational Learning,” in Merriam, S. B.(ed.), *An Update on Adult Learning Theory*(San Francisco: Jossey Publishers, 1993).
- Denzin, N. K. and Y. S. Lincoln(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Inc., 2005).
- Giddens, A. *Central Problems in Social Theory*(London: Macmillan Press, 1979), 『사회이론의 주요 쟁점』, 윤병철·박병래 옮김(서울: 문예출판사, 1998).
- Lefebvre, H. *La vie quotidienne dans le monde moderne*(Paris: Editions Gallimard, 1968), 『현대세계의 일상성』, 박정자 옮김(서울: 도서출판 기파랑, 1995).
- Ludtke, A., *Alltagsgeschichte: Zur Rekonstruktion historischer Erfahrungen und*

- Lebensweisen*, 『일상사란 무엇인가』, 나종석 외 옮김(서울: 청년사, 2002).
- Mezirow, J. *Transformative Dimensions of Adult Learning*(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1991).
- Portelli, A., *The Death of Luigi Trastulli and Other Stories: Form and Meaning in Oral History*(Albany: SUNY Press, 1991).
- Skocpol, T.(ed.), *Vision and Method in Historical Sociology*(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 Thompson, P., *The Voice of the Past: Oral History*(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 Willis, P., *Learning to labor: How working class kids get working class jobs* (Farnborough: Saxon House, 1977), 『교육현장과 계급재생산』, 김찬호·김영훈 옮김(서울: 민맥, 1989).
- Yow, V. R., *Recording Oral History: A Practical Guide for Social Scientist*(London: Sage Publications, 1994).

A Study on Everyday Life in North Korean Education: Tasks and Approaches

Cho, Jeong-Ah(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The existing studies on North Korean education have mainly focused on policies, discourses, and strategies. Educational policies, educational system, formal curriculums, social function of education, and historical development of education have been dealt as major themes in this field.

Although these studies have presented educational system, features of policies, and changes in North Korea, there is a limit in that they do not reflect interactions and dynamics of diverse social factors and agent level in the field. Based on this, this article purports to search for dynamic change in North Korean education through studies on everyday life beyond the ideologically fixed discussion and policy studies.

The following three areas are suggested to pursue research on everyday life related to education as a component of society: 1) daily life and experience of community members related to their education, 2) interactions among actors in educational sites, and 3) dynamics

between structure and agent by the medium of education.

This article also suggests that the following studies should be conducted as four concrete themes regarding everyday life in education. They are as follows: 1) changes and continuities of North Korean education since the liberation, 2) political education as ideological reproduction structure, 3) networking, compromise, and negotiation occurred in educational sites, and 4) life history of North Korean.

In addition, this article reviews the advantages of oral data as research material on North Korean education, and issues of utilizing oral data in terms of its subjectivity, reliability, post-evaluation, and representativeness.

Keywords: North Korean education, Everyday life, Oral history, Structure and agent, Qualitative research